

BUSINESS • REAL ESTATE



WSJ "휘발유 가격 상승 주목해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 달러에 육박하면서 이를 주시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 (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나 티시스의 조지프 라보르그나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모든 리세션(경기침체) 은 두 가지가 선행됐다." 며 "수익률 역

전과 석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미 국채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면서 경기침 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휘 발유 가격 상승 역시 경기 부진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 다는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3.63달러, 3.39달러로이미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애널리 스트들은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5달러나 혹은 4



달러를 터치할 경우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지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미국 소비자들이 유가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항공사들이 이미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원유 상 승과 제조업 비용 증가로 기업들은 어려

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 할 경우 소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 도(연준·Fed)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 는 것도 미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상승을 우려하며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향해 유가를 낮추라고 공격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낮추려고 애쓸 것이라면서도 트럼프의 트윗이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구당 지출 부담 증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가구의 연간 지출 이 가구당 평균 127달러, 최대 261달러 증가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키릴 보루지악 프린 스턴대 연구원과 그자비에 자라벨 런던정경대 교수는 미국이 수입품에 매기는 추가 관세를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소비자 구매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 제로 계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분석에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무역전쟁이 미국 일자리에 미치

는 영향도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캐서린 러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교수는 이 경 우미 가구 지출 증가 예상치에 20달러가 더해질 수 있 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 산업이 입을 피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른 산업을 압박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역전쟁의 영 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낳 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스 교수는 "감세를 하고선 관세로 등을 후려치는 격" 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스타벅스가 오는 2020 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세 계 76개국에 있는 2만 8,000개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9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재 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만들어 대체할 계획 이다. 스타벅스는 또 해초와 곡물 등의 소재 로 만든 빨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빨대가 필 요 없는 뚜껑도 설계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발표는 본사를 두고 있는 시애 틀 시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 사용을 금지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시애틀 은이달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및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케빈 존슨 (Kevin Johnson)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CEO)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식품 및 음료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겠 다는 회사의 글로벌 포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스타벅스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조치로 스타 벅스 매장에서 매년 10억 개가 넘는 플라스 틱 빨대가 제거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매 1분마 다 트럭 한대 분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 지는 셈이다. 이는 새들과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 생태계를 위태롭게 해왔다. 플라스틱 빨 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 은 적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Warehouse: RSF: 2,000 sq.ft. Condition: pre-existing

Rent: \$2,240.00 amt/mo

Term: 3-5 Years



6564 SQ.FT. (LOT)
"HAWKS POINTE" GUARD GATED COMMUNITY

\$1,188,000

*Fully Remodel

For Lease \$2,800

*PANORAMIC VIEW